

아이돌 팬덤 소설 속 여성 신체의 이탈과 편입 - 이유리의 〈둥둥〉과 이희주의 〈최애의 아이〉를 중심으로

박신혜* · 김태수**

1. 서론
2. 관계의 이탈과 자기 신체로의 귀환
3. '정상'의 수행과 규범으로의 강제 편입
4.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아이돌 팬덤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의 신체가 공간과 맺는 관계를 분석하여, 아이돌-팬의 관계에서 신체가 이탈하거나 편입되는 양상을 통해 팬덤의 환상이 서사화되는 방식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대상으로는 이유리의 〈둥둥〉과 이희주의 〈최애의 아이〉를 선정했다. 두 단편은 모두 남성 아이돌과 여성 팬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있으나, 〈둥둥〉의 은탁이 외재적 환상 공간을 경유하는 것과 달리 〈최애의 아이〉의 우미는 신체 자체가 환상을 매개하는 내재적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상호 대비된다. 〈둥둥〉의 은탁은 '아이돌과 팬' 관계의 보편성에서 벗어나 부성애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형성한 뒤, 외계 공간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수렴되는 신체의 양상을 보였다. 반면 〈최애의 아이〉의 우미는 자본주의적

* 제1저자, 단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박사수로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부교수

거래로 가부장 문법을 변형 차용했으나, 사기 폭로와 함께 그 시도가 균열되며 어떤 언어로도 치환 불가능한 신체의 물질성으로 환원되었다. 그 결과 환상의 위치에 따라 〈둥둥〉은 아이돌-팬 관계의 이탈과 자기 수렴의 양상을, 〈최애의 아이〉는 ‘정상’으로부터 이탈하려 했으나 강제로 편입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두 작품은 현실 규범 안에서는 그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불가능했기에 여성 인물이 환상을 경유할 수밖에 없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 연구는 아이돌 팬덤 소설을 사회·문화 현상의 반영이나 환상성의 구현으로 읽어 온 기존의 독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 주체의 신체-공간 경험을 통한 자기 구축의 서사로 재발견하였다. 또한 젠더 정치 구조에 대한 텍스트적 응답을 신체-공간의 관계로 분석하였다. 이로써 팬덤 소설이 대중 서사 장르로 형성되어 가는 가운데, 이 두 작품이 유의미한 젠더 정치를 내포하고 있음을 밝혔다.

(주제어: 아이돌 팬덤 소설, 여성 신체, 정상 가족, 친밀환상, 이성애적 규범, 재생산적 미래주의)

1. 서론

아이돌 팬덤 문화를 향유하는 여성 인물이 주인공인 출판 소설은 지속적으로 창작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소설(이하 ‘팬덤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신체가 공간과 맺는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신체가 ‘정상’ 규범에서 이탈하거나 그 규범으로 편입되는 양상을 통해 환상이 서사화되는 방식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이돌 팬덤 문화를 중심 소재로 하는 소설 중 이유리의 〈둥둥〉¹⁾과 이희주의 〈최애의 아이〉²⁾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아이돌 팬덤

을 소재로 한 소설이 적지 않으나, 이 두 작품을 선별한 독자적 이유는 환상이 신체와 관련을 맺는 위치가 선명한 대비를 이루기 때문이다. 〈등등〉의 은택이 경험하는 환상은 신체 밖의 공간을 경유하는 외재적 양상을 보이는 데 반해, 〈최애의 아이〉의 우미가 경험하는 환상은 신체 내부로 수렴하는 내재적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두 작품은 모두 아이돌과 팬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있으나, 전자는 현실 공간과 자기 신체로의 수렴으로, 후자는 환상과 현실 사이의 균열로 대비된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이 논문은 아이돌 팬을 대상으로 하는 소설을 사회·문화적 현상의 반영이나 환상성의 구현이라는 기존의 독해를 넘어, 여성 주체의 자기 구축의 서사로 재독해하고자 한다.³⁾

- 1) 이유리, 〈등등〉, 『브로콜리 편지』, 문학과지성사, 2021, 33-74쪽. 첫 발표는 『릿터』 26호(민음사, 2020)에서 처음 발표되었으나, 단행본을 분석 텍스트로 삼는다. 이유리 소설의 환상성을 다룬 선행 연구로는 변신 모티프에 주목한 최지윤·방재석의 「이유리 소설에 나타난 환상성 연구—변신 모티프를 중심으로」(『한국문예창작』 제23권 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24, 67-90쪽)가 있다. 이 글은 환상성을 이유리 소설의 주요한 특징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 논의를 이어받되, 해당 연구가 다루지 않은 〈등등〉을 대상으로 신체와 공간의 관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 2) 이희주, 〈최애의 아이〉, 『문학동네』 2024년 가을호, 238-261쪽. 이희주 소설을 자본의 관점에서 분석한 이은지의 논의(「Love of Capitalism-자본의 사랑, 자본으로 하는 사랑」, 『비평포럼: 키워드로 읽는 2020년대 한국문학』, 문학과지성사, 2025, 211-234쪽)가 있으나, 본 논문은 자본주의적 거래를 거부장 문법 변형의 맥락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시각을 달리한다.
- 3) 이 논문에서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언급할 ‘환상’은 팬덤 연구가 축적해온 환상을 개념적 토대로 삼는다. 강신규(「커뮤니케이션을 소비하는 팬덤」, 『한국언론학보』 제66권 5호, 한국언론학회, 2022, 5-56쪽)는 팬덤이 아이돌과의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환상을 가로지르고 나온다고 하였으며, 이나은(「친밀환상의 작동 방식: 팬플랫폼 ‘버블’ 이용자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37권 2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2, 157-200쪽)은 아이돌과의 관계를 환상으로 인지하며, 그에서 파생되는 친밀함을 ‘친밀환상’으로 보았다. 두 논의는 아이돌-팬 관계에서 환상이 현실 욕망을 매개하는 구조를 인정하고 있는데, 본 논문은 논의를 위해 이를 수용하며, 환상이 신체와 맺는 위치 관계에 따라 외재적 환상과 내재적 환상으로 양상을 달리해 살피고자 한다.

아이돌 팬덤을 둘러싼 문학 연구는 2000년대 초 웹에서 유통·향유되었던 ‘팬픽’ 분석에서 출발하였다. 김진량은 현실의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팬픽을 작품 내 기표나 기의보다 수용자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이해하고, 웹 게시판이라는 매체가 형성하는 “겹쳐진 공간”이 팬픽의 환상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⁴⁾ 이후 김남옥·석승혜는 팬픽을 “가장 보편적인 팬 창작 활동”으로 보았으며, 분화와 혼종을 거듭하며 반사회적 코드를 확장해 나가는 매개가 된다고 이해하였다.⁵⁾ 조이진은 팬덤의 소비 양상이 아니라 그들이 생산하는 텍스트가 현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보여줄 수 있다고 논한다.⁶⁾ 배새롬은 아이돌 팬픽을 팬덤의 욕망을 반영하는 대중서사로 분석하며, 팬덤의 상상력이 새로운 민족 주체를 호명하는 동시에 배타적 국민 국가 인식 또한 재현하고 있음을 밝혔다.⁷⁾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6년 이희주의 <환상통>을 기점으로 실존 아이돌을 주인공으로 하는 팬픽과 달리 허구의 아이돌을 따르는 팬이 서사의 중심이 되는 출판 소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작품군에 대한 논의는 이희주의 <환상통>과 김세희의 <항구의 사랑>, 조우리의 <라스트 러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메타적 언어 재현 양상으로 본 평론과,⁸⁾ 이희주의 <환상통>을 아이돌 소유의 관점으로 본 논의,⁹⁾ 박사랑의 <우주를 담아줘>를

4) 김진량, 「팬 소설의 대중성과 서사적 환상」, 『한민족문화연구』 제9집, 한민족문화학회, 2001, 157-177쪽.

5) 김남옥·석승혜, 「그녀들만의 음지문화, 아이돌 팬픽」,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37호,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2017, 191-226쪽.

6) 조이진, 「RPS 창작 문화로 보는 팬덤 참여 문화의 사회·문화적 맥락」,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6권 3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1, 47-95쪽.

7) 배새롬, 「케이팝 아이돌 팬픽의 식민지 조선 재현-애국하는 퀴어와 민족 주체의 자격」, 『대중서사연구』 제31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5, 43-101쪽.

8) 인아영, 「최근 소설에 나타나는 팬픽과 메타적 언어 재현 양상」, 『현대비평』 제4호, 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20, 138-156쪽.

9) 이은지, 앞의 글, 211-234쪽 참조.

중심으로 환상성의 중층 구조를 규명한 연구,¹⁰⁾ 권혜영의 〈사랑 파먹기〉를 대상으로 최근 새롭게 떠오른 ‘버추얼 아이돌(Virtual Idol)’에 관한 관점을 고찰한 연구¹¹⁾ 등이 있다. 그중 〈사랑 파먹기〉를 대상으로 한 김민지의 논의는 이들 소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랑의 양상을 버추얼 아이돌의 영역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여성 팬덤이 처한 구조가 무엇이고, 소설이 이 구조에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신체가 공간과 맺는 관계를 살핀다. 이를 통해 여성 신체가 ‘정상’의 통념에서 이탈하거나 그 규범으로 다시 편입되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¹²⁾ 공간은 신체와의 관계성을 통해 생성과 유지, 소멸을 경험하는 유동성을 갖는다.¹³⁾ 따라서 ‘몸’은 사회구조가 수행되고 각인되는 자리이므로 중요하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몸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적인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소거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이라는 신체적 위치는 남성이 공간과 맺어온 관계와는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몸이 공간을 다시 구성하는 행위는 기존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그 자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10) 박신혜, 「팬덤 소설 : 중층적 환상성의 구현-박사랑, 『우주를 담아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기술』 제38호,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25, 2-21쪽.

11) 김민지, 「문학으로 보는 버추얼 아이돌 팬덤과 문화-〈사랑 파먹기〉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3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4, 123-153쪽.

12) 이유리와 이희주의 작품은 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순문학 매체를 통해 발표되었으나, 아이돌 팬덤이라는 대중문화 현상을 핵심 소재로 삼고 있으며, 장르서사의 문법을 차용하고, 팬픽의 욕망 구조와 정서 코드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 작품들을 대중 서사 장르의 한 갈래로 분류한다.

13) 안숙영, 「젠더와 공간의 만남을 위한 시론」, 『젠더, 공간, 권력』, 한울아카데미, 2020, 21쪽 참조.

아이돌 팬덤의 경우,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던 여성의 욕망을 웹과 SNS 등 공유 공간으로 확장하는 방향성을 갖는다. 외양만 보면 이러한 확장은 공·사 분리의 젠더 질서를 전복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활동 플랫폼의 특성상, 팬덤은 “젠더화된 메타서사” 안에서 작동한다.¹⁴⁾ 결과적으로 사적 공간의 확장은 새로운 형태의 젠더화된 감시와 구조에 재포섭된다. 즉 현실의 팬덤이 수행하는 공간 확장은 전복으로 보이지만 이는 실상 고착화에 가깝다. 아이돌 여성 팬을 중심인물로 내세운 소설들의 의미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현실에서 고착화되는 팬덤의 욕망은 텍스트라는 매개를 통해 기존 질서를 다시 구성하려는 시도로 이어지며, 소설은 그 시도가 수행되는 장(場)이 된다. 따라서 소설에서 여성 인물의 몸이 공간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작업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그 시도가 텍스트를 통해 어떻게 수렴되거나 균열되는지를 살피는 일이자, 그 간 아이돌 문화를 향유한 이들이 출판 소설의 창작자가 되면서 메타 인지적 사고가 어떻게 문학의 영역으로 전환되는지를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관계의 이탈과 자기 신체로의 귀환

이유리의 <둥둥>에서 주인공 ‘은탁’이 경험하는 공간은 크게 인천 앞 바다 위, 홍대의 거리, 비현실의 외계 공간, 그리고 “안전한 집”이다. 이 장에서는 각 공간이 은탁-형규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14) 류진희, 「젠더화된 메타서사로서 한류, 혹은 K-엔터테인먼트 비판-여성 팬, 걸 그룹, 그리고 여성 청년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6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20, 9-37쪽 참조.

통해서 아이돌 팬을 서사의 중심에 두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소설에서 은택이 경유하는 공간 중 형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간부터 골라보자면 홍대 앞 거리이다. 홍대 앞에서 형규에게 마실 것을 주었던 은택은 이를 계기로 유사 양육의 관계를 맺는다.¹⁵⁾ 두 인물이 맺는 관계는 물질적 헌신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아이돌로 성공하는 기틀이 된다.

형규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는 은택에게 기존의 홍대 거리는 익명성의 공간이었으나, 두 사람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거리의 익명성은 사라진다. 거리에서 은택은 “큰 친절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¹⁶⁾지만 형규에게는 작지 않은 친절이었다. 작은 호의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 비대칭의 구조는, 형규가 이후 아이돌이 되어 팬과 맺게 될 관계의 형식을 선취한다. 이로써 형규는 데뷔 이전부터 이미 은택과 ‘아이돌-팬’에 준하는 관계에 놓인다. 그러나 정작 은택은 이렇게 맺어진 관계에서 형규를 사람보다는 ‘키워야 할 무엇인가’ 정도로 보는 데 그친다.

어리기도 했지만 원체 아기 같은 구석이 있던 형규는 나를 친누나처럼 따랐고 나는 그 관계성이 미치고 팔짝 뛰도록 좋았다. 나이 차이를 떠나, 형규는 내게 연애 대상이 아니었다. 굳이 비유하자면 아름다운 야생동물에 가까웠다고나 할까. 신선한 먹이를 먹이며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는 것이 동물을 사랑하는 방법이듯 나는 형규에게 안전하고 보장된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고 그것으로 족했다. (47-48쪽)

15) 실제로 아이돌 팬덤을 구성하는 개개인은 아이돌과 유사 육아, 기획자, 유사 연애 등의 관계성을 보인다. (조이진, 앞의 글, 84쪽 참조) <동등>의 은택-형규 역시 이러한 관계의 프레임 안에 들어가있으며, 은택의 경우 형규의 ‘유사’ 양육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16) 이유리, 앞의 글, 41쪽.

아이돌-팬의 관계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욕망이 개입되는데,¹⁷⁾ 은택이 형규를 보는 것은 야생동물을 돌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형규를 하나의 인격적 개체로 보지 않음으로써 아이돌 팬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로맨스’의 낭만적·성애적 성격을 차단하고 있다. 그렇게 형규는 ‘소비 사회의 성애적 대상화’에서는 벗어나 있게 된다.¹⁸⁾ 이로써 보편적인 아이돌-팬의 관계에서 벗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은택이 형규를 애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방법을 답습하고 있는데, 바로 “넘치도록 돈을 주는 것”¹⁹⁾이다. 재정적으로 형규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그를 대하는 전반적인 태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아버지는 아마 대한민국 목씨 남자들 중 다정함 순위를 매긴다면
밑에서 일등을 맡아놓고 했을 듯한, 그야말로 무뚝뚝하기 이를 데 없는 남
자였다. 아버지는 투정을 받아주기는커녕 하나뿐인 고명딸을 안아준 적도
한 번 없었다. (44쪽)

은택의 아버지는 은택을 “안아준 적도 한 번 없”는 무뚝뚝한 사람이다. 아버지가 제공한 애정은 과잉된 물질적 지원과 신체 접촉의 부재이다. 주목할 점은, 아버지-은택-형규로 이어지는 애정에서 신체 접촉의 부재가 곧 관계를 다시 짚는 지점이라는 것이다. 감정을 소거한 채 물질적 지원만으로 성립하는 가부장적 돌봄은 은택-형규의 관계에서 보편적인 여성 팬-

17) 성적 대상화와 가족담론, 모성 담론, 소비 권력 등 다양한 차원에서 팬들의 욕망은 소비와 창작의 형태로 가시화되는 한국 팬덤의 특성이다. 김수정, 「팬덤과 페미니즘의 조우」, 『언론정보연구』 제55권 3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8, 64-72쪽 참조.

18) 김수아, 「남성 아이돌 스타의 남성성 재현과 성인 여성 팬덤의 소비 방식 구성」, 『미디어, 젠더&문화』 제19권,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1, 15쪽 참조.

19) 이유리, 앞의 글, 44쪽.

남성 아이돌의 구도와는 다른 층위로 재배치된다.

이때 은택은 아이돌 소비자를 뛰어넘은 팬덤의 구성원이 되면서, 경제적 지원을 떠맡는 생산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투여하는 역할을 취한다.²⁰⁾ 이러한 재배치는 은택이 성씨에 부여하는 의미에서도 확인된다. 은택은 “나도 형규처럼 목씨 성을 갖고 있다”²¹⁾고 말하는데, 이는 단순한 동질감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을 아버지의 자리에 위치시키는 동일시이기도 하다. <등등>에서 은택의 부모 중 아버지가 유독 부각되는 서사적 배치 역시 이러한 위치 이동과 호응한다. 이러한 애정 양상은 은택이 형규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로 향한다.

형규가 마약에 중독되었다면 나는 그 상상에, 형규의 꿈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게 나라는 착각에 중독되어 있던 것일지도 모른다. (54쪽)

은택은 형규의 “대마초” 중독을 윤리적·도덕적 잣대로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이 형규에게 어떠한 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런 은택의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물질적 제공을 기반으로 한 애정은 은택을 바다 위에서 표류하게 한다.

나는 지금 등등, 서해 바다 어딘가를 표류하고 있다. 리모와가 슈프림과 컬래버레이션하여 출시한 새빨간 팔십오 리터짜리 캐리어를 구멍 튜브처럼 끌어안은 채로. (36쪽)

은택은 형규에게 운반할 대마초로 인해 바다에 표류하게 된다. 그러나

20) 김수아, 「소비자-팬덤과 팬덤의 문화 정치」, 『여성문학연구』 제50호, 한국여성문학회, 2020, 30쪽 참조.

21) 이유리, 앞의 글, 43쪽.

이 표류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형규에게 행사하던 통제 욕망이 좌초되는 사건이다. 이때 은택이 할 수 있는 것은 캐리어와 자신, 즉 형규의 평판과 자신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이다. 그러나 말 그대로 바다 위에 “둥둥” 떠서 표류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즉, 인천 앞바다는 형규를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선택 보류의 공간이자 탈주의 공간으로 작동한다. 형규에게 도달해야 했을 대마초를 담고 있는 캐리어도 운송 도구로의 기능을 잃고 구멍 튜브로 변모한다. 은택이 일상 공간에서 탈주함에 따라 캐리어 역시 생존 도구로 재맥락화된다. 형규와 자신 중에서 형규를 선택한 은택이 도달하는 곳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눈을 살그머니 뜨자 나는 새하얀 공간에 누워 있었다. 천장도 바닥도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텅 비고 광활한 공간이었는데 출지도 텅지도 않은 온도에 아무런 그림자도 이음매도 없어 언뜻 보기에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닌 듯싶었다. (57-58쪽)

“언뜻 보기에” 지구가 아닌 이 공간은 새하얗고 어떤 경계도, 그림자도 없는 무(無)의 공간이다.²²⁾ 즉, 가부장제에서 파생된 형태의 애정이나 아이돌 산업의 자본주의, 아이돌-팬 관계에서 형성되는 고유의 질서 등이 작동하지 않는다. 은택의 신체는 현실의 모든 구성 형식에서 바깥에 위치하게 된다. 더해서, “새하얀 공간에 누워 있”는 수동적 신체는 현실에서 형규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즉, 지구상의 공간이 아닌 이곳에서 형규를 향한 은택의 개입은 불가능해진다.

22) 이 공간이 외계와의 실제 조우인지 표류 중의 환각인지는 작품 안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본 논의는 그 판별보다, 이 공간이 현실의 질서가 미치지 않는 자리로 기능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유리 소설의 환상성을 다룬 선행연구(최지윤·방재석, 앞의 글)를 참조.

“맨입으로 부탁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허락해준다면, 당신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게요.”

“뭐든지 좋아요. 대신 우리와 만났던 기억은 지워지겠지만, 당신은 원하는 것을 이룬 상태로 안전한 집에서 눈을 뜰 거예요.” (66쪽)

은택은 형규가 아닌 자신만을 위한 소원만 빌 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 이때 은택의 “이타심”²³⁾은 외계 생명체들에 의해 처음으로 차단된다. 인천 앞 바다를 표류하기 전까지 은택은 형규를 위해 살았으며, 표류하여 비현실의 외계 공간으로 오는 순간에도 형규를 위한 선택을 했다. 은택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욕망을 마주한다.

은택의 소원이 무엇인지 작품에서 명시되지는 않으나, 그가 “안전한 집”으로 되돌아온 이후의 장면을 살펴보면 체화된 행동 규범의 강제적 단절은 은택의 삶이 자신에게 수렴되도록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가뿐히 몸을 일으켰다. 잠옷을 훌렁훌렁 벗고 욕실로 들어갔다. 웬지 자꾸만 기분이 좋아 ㅎㅎ, 콧노래가 나왔다. 이런 날엔 역시 쇼팽이지. 신촌 쪽으로 올라가 화방에 들렀다가 현대백화점엘 가볼까. (73쪽)

은택이 놓인 공간은 외계 생명체들이 말했던 “안전한 집”으로, 은택이 타인(형규)이 아닌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통제하는 공간이다. 즉, 타인에게 부성애적 규범이 적용되기 이전의 신체로 되돌아간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은택이 과거의 현실로 회귀한 듯하나, 안전과 통제가 스스로에게 수렴한다는 지점에서 은택은 환상 공간을 거쳐 이전과는 다른 상태가 된다.

23) 이유리, 앞의 글, 64쪽.

은택의 신체는 보편적인 아이돌-팬 관계에서 출발해 아버지의 돌봄 방식을 따르는 과정을 거쳤으며, 아버지처럼 형규를 통제하던 위치에서 차단됨에 따라 스스로에게 수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환상 공간을 매개로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인천 앞 바다의 표류와 외계 공간과 같이 현실의 질서가 미치지 않는 공간의 거래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은택은 아버지의 애정 방식을 답습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즉 〈둥둥〉에서 은택이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것은 현실에 대한 직접적 저항이 아니라 환상이라는 우회를 통해 가능했다. 이러한 점에서 〈둥둥〉의 환상은 타인에게 매여있던 신체가 자기에게 수렴하도록 하는 매개로 기능한다.

3. '정상'의 수행과 규범으로의 강제 편입

이희주의 〈최애의 아이〉에서 '우미'가 경험하는 공간은 임신 전-임신 중-출산 이후로 나눌 수 있다. 그의 신체는 산부인과에서 자본주의적 거래를, 팬사인회에서 환상의 첫 균열을, 시장에서 자본주의 거래의 거짓과 가부장적 위계의 동시 노출을 경험한다.

우미는 최애(最愛) 아이돌인 '유리'의 정자를 기증받는 "희망열매" 사업에 참여해 유리의 아이를 갖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우미의 이러한 사고는 자본주의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는 자신은 이미 다른 '최애'를 겪어왔기 때문에 마음을 주는 데 "증고품"²⁴⁾이라고 생각한다. 마음까지 자본의 산물로 여긴다. 그래서 우미는 자신이 들인 돈이 유리에게 금전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24) 이희주, 앞의 글, 238쪽.

그렇다면 나와 뒤섞이는 이것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는가. 유리에게서 나온 거니까 전부 주고 싶다. 수송 비용, 보관 비용, 기타 등등…… 제하는 것 없이 바로 보내주고 싶다. 온전한 대가를, 순수한 돈을, 중간에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게 일대일로 주고 싶다. (245쪽)

앞서 〈둥둥〉에서 똑같이 금전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은탁의 지원은 형규에게 직접 닿았다는 지점에서 자본주의의 질서보다는 양육-피양육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었다. 반면, 〈최애의 아이〉에서 우미가 보이는 애정은 생산-유통-배급이라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전제로 한다. 우미는 보편적인 아이돌-팬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랑을 자본주의적 거래 틀로 이해하고 수행한다. 그런데 이 거래에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될 유리의 혈통을 이으려는 욕망을 함께 작동한다. 즉, 우미는 가부장의 혈통주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혼이 아닌 자본주의적 거래 방식으로 변형해 차용한 것이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공간으로 소설은 ‘산부인과’를 들고 있다. “희망열매” 사업은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산부인과가 자본주의의 통제하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바로 모성애, 혹은 아이돌 산업에서 팬이 갖고 있는 환상과 애정을 철저하게 자본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데 있다.

진심을 담아 말하자 의사가 드물지 않다는 듯 넘겼다.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많이들 그런다니. 특별할 게 없다는 듯한 태도에 속이 약간 굴렀다. (243쪽)

산부인과 의사는 우미가 유리에게 갖는 감정, 그리고 아이가 특별했던 하는 바람들을 사람이 말하는 평범한 것으로 치부한다. 산부인과는 다층적 규범이 충돌하는 공간이다. 우미는 자본주의와 환상의 중층성을, 의

사는 일상적 거래로의 평준화를 보여준다. 우미에게는 자본주의적 질서뿐만 아니라 가부장제도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아이는 다를 것이다. 너희들 밑에서 빼앗기기만 하지 않을 거다. 너희 아들들을 기죽게 만들고 딸들의 마음을 뺏을 것이다. (242-243쪽)

아이에게 갖는 우미의 환상은 가부장 질서를 뒤엎는 형태를 띤다.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이돌-팬의 관계에서 확장된 것이라는 지점에서 사회적 통념이 추구하는 가부장의 가족 형태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이다. ‘수정기술’을 통해 나타나는 재생산의 통제는 젠더 규범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유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보인다.²⁵⁾ 그러나 우미는 정복과 위계라는 가부장의 것을 그대로 차용한다. 이는 우미가 가부장제와 완전히 결별했다기보다는 가부장의 문법을 자본주의의 형태로 다시 취한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엄마의 유난스러운 사랑은 이미 오래전 우미의 유전자를 보존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²⁶⁾했다는 서술에서 알 수 있듯, 우미의 임신과 출산은 모계로부터 학습된 사랑의 문법을 잇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학습된 문법 자체가 부계 혈통주의의 변형이라는 점에서, 우미의 환상은 가부장 문법 안에서 작동한다.

소설에서 임신은 이러한 이념적 장치로만 활용되지는 않는다. 임신한 우미의 신체가 어떠한 상태에 놓이는지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25) 린다 맥도웰, 『젠더, 정체성, 장소』,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 한울아카데미, 2019, 59쪽 참조.

26) 이희주, 앞의 글, 247쪽.

우미에겐 싸울 용기가 있었다. 지독한 몸의 통증도 이를 악물고 참았다. 출근할 때마다 24시간 설렁탕집의 역겨운 누린내를 피해 한 정거장 일찍 내려 걷는 것도, 축축한 하반신도, 가슴 통증도 전부 참았다. 오히려 우미는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246쪽)

“지독한 몸의 통증”과 “역겨운 누린내”, “축축한 하반신”, “가슴 통증” 등 임신한 신체가 겪는 고통이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이 통증은 우미가 유리의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극복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둥둥>에서 은탁의 환상이 신체 바깥의 공간을 경유한 것과 달리, 우미의 환상은 신체 바깥이 아닌 안쪽에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환상이 신체 감각 자체를 재정의한다는 측면에서 우미의 환상은 내재화된 양상을 띤다.

우미는 여자로서 자신감이 없었고, 자신이 남자로서 사랑하는 상대 앞에서 여자로 보이려고 애쓰다가 패배하는 걸 감당할 만큼 땃집이 좋지 않았다. (251쪽)

우미는 여성 젠더의 수행자로서의 자기를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성애적 시장 경쟁을 회피하고 그 경쟁 앞에서 패배할 두려움을 드러낸다. 이러한 자기 부정은 우미가 아이돌-팬의 일상적인 유사 감정의 자리에 설 수 없게 한다. 이때의 유사 감정은 본질적으로 이성애적 시장의 변형으로, 아이돌-팬의 관계를 지탱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우미의 자본주의적 거래는 유사 감정을 우회하기 위한 선택이다. 그러나 우미는 이성애 시장을 회피하면서도 재생산 자체는 포기하지 않는다. 아이는 미래이자 구원의 형상으로 남아 있다. 이 점에서 우미는 재생산적 미래주의의 문법 안에서 작동한다.²⁷⁾ 따라서 이성애적 시장에 직접 진입하지 않으면서도 ‘엄마’로부터

답습한 유전자 보존의 형태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우미는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한다. 이후 우미는 팬싸인회에서 유리를 만난다.

너 진짜 살아있는 인간이네. 인간이었네. 나 진짜 너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네가 인간이었다니.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이제야 들었다. (253쪽)

우미는 유리가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에 놀란다. 그런데 이때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네가 인간이었다니”라는 서술이다. 우미는 유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이기에 그의 아이를 가지기로 결심했으면서도, 유리가 현실 속 인물이라는 사실을 거둬들여서 스스로에게 인지시킨다. 이러한 우미의 태도는 ‘친밀환상’의 작동 방식과 호응한다. 이는 친밀함을 느끼고자 하는 대상에게 친밀한 감각을 상상하고 시도하는 것인데, 실제 친밀한 감각을 원한다기보다는 상상으로 형성된 친밀감의 환상 소비를 목표로 한다.²⁸⁾ 우미가 유리를 거둬 “인간”으로 인지하면서도 친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친밀환상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돌과의 커뮤니케이션은 환상을 담보로 하고 있기에,²⁹⁾ 유리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그 환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자본주의로 우회한 우미의 사랑이 의지하고 있었던 환상의 자리가 유리의 인간화와 함께 흔들리게 된다. 거래와 인간화가 우미의 신체에서 충돌하며, 내재화된 환상에 첫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다.

단지 유리가 일상의 행복이 되어주는 것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경

27) 고강일, 「〈브로크백 마운틴〉과 재생산적 미래주의」, 『비평과 이론』 제21권 3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6, 91-92쪽에서 Lee Edelman의 논의 재인용 및 참조.

28) 이나은, 앞의 글, 169쪽 참조.

29) 강신규, 앞의 글, 37쪽 참조.

힘 삼아 온 밤색 머리의 여자. 아니, 그딴 것보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여자. 특히 마지막이 자신을 정상으로 보이게 한다는 걸 우미는 알았다. 어이 없지. 저게 제일 썩네. (253쪽)

팬싸인회에서 우미는 자기를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여자”로 위장한다. 이성애-결혼이라는 가부장적 질서가 그녀를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이성애 시장을 회피했던 우미는 여기에서 시장의 규칙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미는 그 위장이 “제일 썩” 것임을 알고 있다. 돈으로 사람을 사는 거짓된 결혼은 가장 값싸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위이다. 이것은 우미를 ‘정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일종의 위장으로, 우미가 유리에게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는 우미가 가부장 질서의 문법을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그 안에 자신을 위치시킬 줄 아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우미는 그 질서를 자본주의적 가치평가의 잣대로 환산함으로써, ‘정상’을 “제일 썩” 것으로 깎아내린다. 다만 이러한 사고와 행동이 위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며, 그 한계는 이후 시장에서 드러난다.

은정은 안심했다. 울고불고 난리를 피울 줄 알았는데 진짜 엄마가 되었구나. 역시 제 배 아파 낳으면 모성이 생기는 거야. 그게 누구의, 어떻게 만들어진 아이일지라도 그렇다. 근원적으로 자식은 엄마의 것이다. (259쪽)

우미가 출산한 이후, “희망열매” 사업은 사기극이었던 것으로 밝혀진다. 산후조리원에서 이 사실을 전달하는 은정은 우미에게 모성을 강제하고자 하는 외부의 힘 중 하나이다. 은정에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모성애이며, 그의 시선에서 우미는 출생의 맥락이 지워진 채 ‘어머니’라는 자리로

환원된다. 이때 은정은 “그게 누구의, 어떻게 만들어진 아이일지라도”라는 입장을 드러내는데, 이는 모성애가 자본주의적 거래든 사기든 무화시킬 수 있는 논리임을 드러낸다. 이렇게 우미는 어떤 경로로 아이를 갖게 되었는가와는 무관하게 “제 배 아파 낳”은 어머니로서 통념에 편입된다.

순간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것만으로 우미는 그 남자가 우미의 정체를 알아챘다고 확신했다. 감정을 숨기려는 흐리멍덩한 눈빛이 팽팽한 기대와 긴장과 혐오가 어린 눈빛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혼탁하고 더러운 눈이었다. 보자마자 우미는 남자의 뇌속 극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오 분의 시술이 강간 포르노로 뒤바뀌어 상영되는 걸 알았다. 그가 우미를 정복했다고 여기는 걸 알았다. (260쪽)

시장에서 정자 제공자의 시선은 우미의 자본주의적 거래를 “정복”으로 환원함으로써, 우미가 회피하려 했던 이성애 시장의 위계를 그대로 복귀시킨다. 결국 우회는 우회가 되지 못한다. 우미가 유리의 아이로 전복시키려고 했던 위계는 결국 아이들을 향한 팬의 심리를 이용한 시장의 기만이 었다. 더해서, 이는 남-녀간의 성적 위계로도 작동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미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이성애-혼인을 기반으로 한 출산이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존재하는 ‘정상가족’의 통념으로 강제로 편입된 것이다. 이는 ‘가족 유연성(flexibility)’ 논의에 역행하는 양상으로, 우미가 배제하고자 하였던 결혼중심주의와 이성애 중심주의로 회귀하는 양상이기도 하다.³⁰⁾

그 과정에서 우미는 성적 위계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그에게 시장은 예고 없는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다. 이로써 우미가 아이돌-팬의 관계에서 가

30) 이재경, 「가부장제 이후 한국 가족」, 『한국문화연구』 제29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5, 298-305쪽 참조.

졌던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것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진짜’가 등장함으로써 우미에게 유리는 ‘가짜’가 된다. 이는 우미가 팬싸인회에서 유리를 ‘진짜’로 받아들였던 것과 유사하다. 뜻하지 않게 진짜‘들’을 마주하는 우미에게 팬싸인회에 이어 시장은 환상 속 유리의 부재를 강제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니들의 정자가 들어간 아기도 바닥에 내려치면 공평하게 토마토가 된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다. (261쪽)

우미가 시술을 받아 낳은 아이의 친부가 되는 사람은 한 명이겠으나, 이들을 “니들”로 지칭하는 것은 결국 “희망열매”에서 사기극에 동참한 이들을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정자를 평등하게 거래했다고 믿지만, 남성들에게 그것은 정복의 과정이었다. 시장의 평등이 거짓이라면, 아이가 가진 가치 또한 상실된다. 자본주의가 약속한 거래의 평등이 깨진 자리에서 우미가 잡은 평등은 신체의 물질적 환원이다. 즉 어떤 논리도 작동하지 않는 그저 생명체로의 평등이고, 이것이 영아 살해로 증명된다.

우미가 의지했던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거래는 시장에서 이성애-가부장의 시선에 의해 평등의 원칙을 박탈당하고, 거래 과정에서 차용되었던 가부장제 또한 정복의 위계로 회수된다. 외부로부터 강제되었던 모성애 역시 마찬가지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적 정복, 모성애가 우미의 신체 위에서 동시에 충돌하고 탈락하는 가운데 우미가 아이를 두고 한 선택은 자본주의나 가부장제, 모성애 어떤 것으로도 설명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의미로도 번역되지 않는 자리에서 수행된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에델만이 비판한 재생산적 미래주의의 문법 안에서 미래를 약속받지 못한

신체가 그 문법 자체에서 빠져나오는 행위로도 읽을 수 있다.³¹⁾ 즉, 우미의 신체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발판마저 소거시킨다.

또한 정자 제공자로 추정되는 이와의 만남에서 주변에 경호원이 많다는 것까지 고려해 본다면, 이것은 시장의 익명성이 진작 무너졌으며 의도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적 혈통주의 논리가 결합한 채 작동하고 있었으며, 산부인과에서 시장으로의 공간 변화는 자본주의 자체의 위장이 벗겨지는 것을 목격하게 하는 이동이다. 우미가 의지했던 자본주의 거래의 평등성이 가부장 정복으로 부정되면서 그 위에 세운 계획이 무너진다.

“넌 죄의식도 없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우미는 은정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가 입을 열어 짧게 답했다. 말했잖아. 내가 원한 건 딱 하나라고. 유리의 아이를 갖는 거. (261쪽)

시장에서의 사건 이후에도 우미는 자신의 욕망을 “유리의 아이를 갖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는 우미가 현실의 아이와 자신이 원했던 아이를 분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리-유리의 아이-우미의 삼각 구도로 구축되었어야 할 세계관에 균열이 간 이후에도 우미가 “유리의 아이”라는 말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 욕망이 어떠한 논리로도 훼손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우미가 경유한 자본주의 시스템은, 각 공간을 거칠수록 오히려 우미와 유리 사이를 벌리는 장치로 작동했다. 산부인과에서 유리와 우미의 아이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가 되었고, 팬싸인회에서 우미가 유리를 본 순간 유리는 아이돌로서의 환상에 균열이

31) 고강일, 앞의 글, 91-92쪽 참조.

간 채 인간화(人間化)되었다. 출산 이후, 시장에서 사기극의 ‘진짜’와 아이가 우미와 같은 공간에서 조우함에 따라 우미의 세계관에는 균열이 갔다. 우미의 마지막 평등은 신체의 물질성으로 귀결된다.

4. 결론

이 논문은 팬덤 소설에 나타난 여성 신체와 공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이유리의 〈둥둥〉과 이희주의 〈최애의 아이〉를 삼았으며, 여성의 신체와 공간의 상호성 속에서 팬덤 문화 내의 환상이 서사화되는 과정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둥둥〉의 은택은 보편적인 아이돌과 팬의 관계에서 벗어나 그 관계를 부성애적 논리로 재구성했다. 그러나 인천 앞바다에서의 표류를 거쳐 비현실적 외계 공간으로 진입함에 따라 기존의 관계와 그것을 지탱하는 사고가 차단되었다. 이후 현실로 회귀하였을 때, 타인을 향했던 은택의 신체는 자기 자신으로 수렴했다. 그 결과, 〈둥둥〉은 타인과 자신의 관계까지 새롭게 구성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애의 아이〉의 우미의 신체 역시 보편적인 아이돌-팬의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점에서 〈둥둥〉의 은택과 공통적이었다. 우미는 자본주의적 거래를 통해 정상 통념 바깥에 자기만의 자리를 만들고자 하였고, 가부장적 혈통주의를 변형해 차용하는 가운데 아이돌을 향한 환상을 신체에 내재화했다. 그러나 사기 폭로로 인해 신체에 내재화된 환상이 균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외부의 환상 공간을 경유한 〈둥둥〉과 달리, 우미의 신체는 환상이 내재화된 자리에서 그 이탈을 시도하였으나, 그 시도는 균열로 귀

결되어 어떤 의미로도 번역되지 않는 신체의 물질성으로 환원되었다.

두 인물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운동은 이탈과 강제 편입의 측면에서 살필 수 있었다. 은택의 경우, 아이돌-팬 관계에서 부성애적 규범을 체화함에 따라 기존의 아이돌-팬의 관계는 단절에 이르고, 공간적으로는 홍대 거리와 인천 앞바다, 외계 공간을 거쳐 “안전한 집”이라는 새 공간에 정착했다. 우미의 경우, 자본주의적 거래와 가부장의 정복-혈통 관념이 이중으로 작동하다가 영아 살해로 모든 규범이 탈락하면서, ‘정상’의 규범에 속하지 못하는 균열을 보였다. 공간적으로는 산부인과와 팬싸인회장, 시장을 거쳤음에도 정상성에 속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두 편의 소설은 모두 아이돌과 팬의 관계에서 환상을 다루었으나 <등등>은 환상 공간을 경유하고 <최애의 아이>는 신체를 환상의 경유지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두 작품은 여성의 신체가 기존의 젠더화된 규범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였다. 논의를 통해, 이는 환상을 경유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팬덤 소설을 사회·문화 현상의 반영이나 환상성의 구현으로만 읽지 않고, 아이돌-팬 관계가 전제하는 환상을 신체-공간 경험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상은 아이돌을 향한 욕망의 표현이나 문학적 장치에 그치지 않고, 여성 신체의 자리매김을 가능하게 하거나 좌절시키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동하였다. <등등>에서 환상은 젠더화된 공간 질서를 재편하는 매개로 기능하였으며, <최애의 아이>에서 환상이 내재화된 임신과 출산은 오히려 여성 신체가 균열되는 지점이 되었다. 이를 통해 환상의 외재적·내재적 경유가 ‘정상’ 규범으로부터 정체성 구축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변수임을 발견하였으며, 아이돌 팬덤 소설이 내포하는 젠더 정치, 다시 말해 여성 신체에 이성애·모성애·돌봄의 전유와 이탈이 시도되는 과정을 신체와 공간의 관계로 해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이 두 편의 소설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화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해야 한다. 다음으로, 분석 대상이 출판 소설에 한정되어 있어, 웹소설 등 인접 매체에서의 팬덤 서사 분석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여성 팬과 남성 아이돌의 관계라는 특정 젠더 구조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분석 대상을 확장하고, 매체와 젠더 구도의 차이가 신체-공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이유리, 〈등등〉, 『브로콜리 펀치』, 문학과지성사, 2021, 33-74쪽.
이희주, 〈최애의 아이〉, 『문학동네』 2024년 가을호, 238-261쪽.

2. 논문과 단행본

- 강신규, 「커뮤니케이션을 소비하는 팬덤」, 『한국언론학보』 제66권 5호, 한국언론학회, 2022, 5-56쪽.
고강일, 「〈브로크백 마운틴〉과 재생산적 미래주의」, 『비평과 이론』 제21권 3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6, 88-112쪽.
김남옥·석승혜, 「그녀들만의 음지문화, 아이돌 팬픽」,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37호,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2017, 191-226쪽.
김민지, 「문학으로 보는 버추얼 아이돌 팬덤과 문화-〈사랑 파먹기〉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3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4, 123-153쪽.
김수아, 「남성 아이돌 스타의 남성성 재현과 성인 여성 팬덤의 소비 방식 구성」, 『미디어, 젠더&문화』 제19권,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1, 5-38쪽.
김수아, 「소비자-팬덤과 팬덤의 문화 정치」, 『여성문학연구』 제5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10-48쪽.
김수정, 「팬덤과 페미니즘의 조우」, 『언론정보연구』 제55권 3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8, 47-86쪽.
김진량, 「팬 소설의 대중성과 서사적 환상」, 『한민족문화연구』 제9집, 한민족문화학회, 2001, 157-177쪽.
류진희, 「젠더화된 메타서사로서 한류, 혹은 K-엔터테인먼트 비판-여성 팬, 걸 그룹, 그리고 여성 청년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6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20, 9-37쪽.
박신혜, 「팬덤 소설 : 중층적 환상성의 구현-박사랑, 『우주를 담아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기술』 제38호,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25, 2-21쪽.

- 배새롬, 「케이팝 아이돌 팬픽의 식민지 조선 재현-애국하는 퀴어와 민족 주체의 자격」, 『대중서사연구』 제31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5, 43-101쪽.
- 안숙영, 「젠더와 공간의 만남을 위한 시론」, 『젠더, 공간, 권력』, 한울아카데미, 2020, 17-45쪽.
- 이나은, 「친밀환상의 작동 방식: 팬플랫폼 ‘버블’ 이용자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37권 2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2, 157-200쪽.
- 이재경, 「가부장제 이후 한국 가족」, 『한국문화연구』 제29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5, 283-310쪽.
- 조이진, 「RPS 창작 문화로 보는 팬덤 참여 문화의 사회·문화적 맥락」, 『미디어, 젠더&문화』 제36권 3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1, 47-95쪽.
- 최지윤·방재석, 「이유리 소설에 나타난 환상성 연구—변신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제23권 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24, 67-90쪽.
- 린다 맥도웰, 『젠더, 정체성, 장소』,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 한울아카데미, 2019.

3. 기타자료

- 이은지, 「Love of Capitalism-자본의 사랑, 자본으로 하는 사랑」, 『비평포럼: 키워드로 읽는 2020년대 한국문학』, 문학과지성사, 2025, 211-234쪽.
- 인아영, 「최근 소설에 나타나는 팬픽과 메타적 언어 재현 양상」, 『현대비평』 제4호, 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20, 138-156쪽.

Abstract

Deviation and Integration of the Female Body in Idol Fandom Fiction - Lee Yu-ri's *Dungdung* and Lee Hee-ju's *My Idol's Baby*

Park, Shin-Hye and Kim, Tae-Soo(Dankook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how the bodies of female characters in idol fandom fiction relate to space, examining the way fantasy within fandom is narrativized through the body's deviation from, and incorporation into, the idol-fan relationship.

It takes as its objects two short stories, Lee Yu-ri's *Dungdung* and Lee Hee-ju's *My Idol's Baby*. Both cent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male idol and a female fan, yet they stand in contrast: whereas Eun-tak in *Dungdung* passes through an external fantasy space, U-mi in *My Idol's Baby* makes her own body an internal space that mediates fantasy. Eun-tak departs from the conventionality of the idol-fan relationship and forms a bond grounded in paternal affection; through an extraterrestrial space, her body comes to converge upon herself. U-mi, by contrast, appropriates and reworks a patriarchal grammar through a capitalist transaction, but once the fraud is exposed her attempt fractures, and she is reduced to a bodily materiality that no language can translate. Depending on where fantasy is located, *Dungdung* presents deviation from the idol-fan relationship and convergence upon the self, while *My Idol's Baby* presents an attempt to deviate from the "normal" that ends in forced incorporation. Despite this difference, the two works share a common condition: because escape from the norms of reality is impossible within reality itself, the female character can only pass through fantasy.

Moving beyond prior readings that have treated idol fandom fiction as a reflection of socio-cultural phenomena or as a realization of the fantastic, this

study rediscovers it as a narrative of self-construction grounded in the female subject's bodily and spatial experience. It further reads the texts' response to gendered political structures through the relation between body and space. In doing so, it shows that, as fandom fiction takes shape as a genre of popular narrative, these two works carry a meaningful gender politics.

(Keywords: Idol fandom fiction, Female body, Normal family, Intimate fantasy, Heteronormativity, Reproductive futurism)

논문투고일 : 2026년 5월 9일
심사완료일 : 2026년 6월 14일
수정완료일 : 2026년 6월 16일
게재확정일 : 2026년 6월 18일